

등
94.8.4

외모에 민감해진 우리 또래

여학생들이라면 누구나 「예쁘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한다.

그런데 선생님이나 주변 친구들은 나를 두고 항상 「명랑하다」 또는 「귀엽다」고만 말하지 「예쁘다」고는 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이 늘 섭섭해 구구라도 내게 「예쁘다」고 해주면 그사람이 무척 고마울 것 같았다.

심지어 남녀공학인 중학교에 다닐 때 혼자 짝사랑했던 동창생 남학생이 있었는데 그 아이를 내가 좋아했던 이유도 그 남학생이 내게 「너 참 예쁘게 생겼다」는 말을 했기 때문이었다.

그때 나는 내게 예쁘다는 말을 해준 그 남학생이 이세상에서 제일 멋있게 보였다.

내 친구들은 그 학생이 우리반앞을 지나갈 때마다 일부러 내 이름을 크게 불러주곤 했고 평소 덜렁거리를 잘하던 나도 그때는 얼굴이 빨개져 고개를 숙이곤 했다.

「예쁘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었는지 나는 통장에 저금한 돈을 빼거나 엄마에게 받은 잔심부름값을 조금씩



떼어내 그 남학생에게 줄 선물을 사기도 했다.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웃음이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예쁘다는 말을 들은게 여전히 기쁘다.

확실히 우리 또래의 여학생들은 외모에 참 민감한 것 같다. 만나면 누가 예쁘니 안 예쁘니하는 말을 가장 많이 하게 된다.

선생님께서서는 얼굴보다는 마음이 아름다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어른들도 예쁜것 따지는건 우리와 비슷한 것 같다. 어른들도 주위의 여자들 얘기를 할때 제일 먼저 예쁜지부터 물어보신다.

또 여자는 푹푹한 것도 좋지만 우선 예뻐야 시집도 잘가고 취직도 잘된다는 말도 하신다.

얼마전 뉴스에서 여상 학생들도 공부 잘한 애보다 키크고 예쁜애들이 취직이 잘돼 방학때면 살빼고 성형수술도 한다고 들었다.

그런 얘기를 들을때마다 거울을 꺼내 「귀엽긴 해도 예쁘지는 않은」 내얼굴을 한번 더 들여다보게 된다.

김 태 연(계원예고 1년)